

[로스쿨 합격기]

긴 인내의 여정

이 예 나

- 1984년 12월 생
-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졸업(03년)
-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졸업(07년)
- 의류브랜드 GAP korea branch 근무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재학중



I. 로스쿨 지원동기

미국 의류 브랜드 GAP의 글로벌기획팀에서 근무한 지난 3년은 선진 국제기업의 ‘소비자 중심 경영’을 직접 실천하며 그 중요성을 깨닫는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2010년 2월, 사내 정책을 감시하는 컴플라이언스 부서장과 신규사업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미국의 엄격한 소비자보호정책이 기업의 소비자지향적인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원가절감을 위해 만난 베트남 제조업자는 테스트 수치가 GAP의 규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원단의 사용을 허용한다면 원가를 대폭 낮추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컴플라이언스 부서장은 소비자만족을 위한 회사의 내부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소비자만족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그의 신념은 저로 하여금 한국 시장과 소비자를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재래시장의 잠재력을 확인하고자 동대문 새벽시장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제품의 품질 및 안전에 대한 기준이나 테스트 절차 없이 빠른 생산과 판매만을 추구해 온 상인들에게 ‘소비자권리’는 이상적인 문구에 불과했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세탁 시 주의점에 대한 경고나 안전성이 결여된 저품질 상품에 대해 정당한 항의를 제기하기 보다는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과 정책의 보호 아래 소비자의 권익이 존중되는 미국과 달리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소비자의 현 주소를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법과 기업정책, 그리고 소비자의식 사이의 밀접한 연계성을 깨닫게 된 때부터 저는 소비자피해사례와 이를 철저히 반영해 재정비되는 미국 의류회사의 규제들을 예의 주시하며 의류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나아가 한국 소비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소비자법률과 정책을 연구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학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소비시장 특성과 제품 생산 절차에 대한 실무 지식이 법률적 지식을 겸비하여 대한민국 소비자권리보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법조인의 꿈을 실현하고자 로스쿨 입학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II. 로스쿨 입시준비

지금부터는 로스쿨 입시에 도움이 되었던 성공적인 경험담뿐만 아니라 미흡했거나 아쉬웠던 부분들을 정리해보으로써 예비 로스쿨 4기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입시전략 수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학부 졸업 후 3년의 회사생활을 마치고 5월이라는 다소 늦은 시점에 로스쿨 입시준비를 시작했기에 저만의 고유한 전공분야와 경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요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량적인 요소들에 대해 평균 이상의 실력을 갖추어야 비로소 정성적인 강점들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입시준비를 시작한 5월 이래 4개월 간은 LEET 공부에, 9월부터 3개월 간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1. 정량평가 – 정해진 기간 내 고득점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라!

(1) 학점

각 대학교별로 성적평가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과 자교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요자 높은 성적을 부여하는 교수님들이 다수를 이룬다는 점에서 학점에 의한 평가는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견해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로스쿨에 합격한 학생들의 학점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분석 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학점이 로스쿨 입시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로스쿨 입시에 있어 학점은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학점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되어 각 로스쿨 별로 반영하는 비율에 따라 객관적인 수치로 적용되므로 1차 합격 단계에서 학점이 정량평가 요소에 의한 지원자 서열화에 크거나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 둘째, 면접 당시 제출 서류를 참고하며 지원자의 특징을 단시간에 파악해야 하는 면접관들에게 학부 4년 성적은 학생의 성실함과 학업수행능력에 대해 가장 간단하고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의류학에 대한 남다른 욕심과 호기심으로 학부 4년간 직물화학, 마케팅, 디자인, 시장과 유통, 소비자 심리분석 등의 전공 학습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임하며 다양한 프로젝트와 발표수업을 이끌어 왔고, 그 결과 수석 졸업이라는 보람된 결실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높은 학부 성적이 법이나 사회, 정치, 철학에 대한 약한 지식 기반과 일종의 고사라 볼 수 있는 LEET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앞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법학에 대한 동기와 열정만으로 로스쿨에 도전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마지막 학기 기말고사까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우수한 학점을 확보해 놓으시기를 권합니다. 반면, 이미 졸업을 마치고 로스쿨 입학준비에 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는 LEET, 공인영어성적,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의 다른 요소에서 더 좋은 점수를 얻음으로써 학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부성적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로스쿨도 있다는 점에서 학부성적에 대한 고민에 시달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로스쿨 입시에 필요한 전형요소에서 자신의 강점이 되는 항목과 약점이 되는 항목을 정확히 분석하고 자신의 약점들을 강점으로 보완하는 노력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여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보다는 앞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긍정적인 자세로 입시를 준비 하는 자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공인영어점수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며 미국, 유럽 등지의 바이어들을 상대하는 직업에 종사해 왔기 때문에 공인영어점수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만

약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TOEFL과 TOEIC 성적을 미리 확보해 두었던 것이 5월이라는 다소 늦은 시점에 로스쿨 입시에 도전했음에도 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며 LEET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학점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LEET에서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점을 부각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 하에 공인영어점수에서 약간의 가산점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학교선택의 폭을 넓히고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6월, 7월, 8월에 걸쳐 TEPS 시험에 응시 하였고 원서접수 시 가장 높은 점수를 골라 제출 하였습니다. 저와는 반대로 LEET 문제풀이에 자신감을 갖고 있으나 영어성적 확보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수험생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학점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영어점수 보완을 위해 LEET를 비롯한 기타 요소들의 점수를 더욱 강화하고 학교마다 전형요소별 비율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맞는 입시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자신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영어구사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느냐에 따라 공인영어점수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인영어 시험 고득점자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두, 세 번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맞추어 기출문제를 꾸준히 풀어보는 것, 그리고 로스쿨 원서접수 직전까지 최대한 여러 번 시험을 봄으로써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점수를 얻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예비 로스쿨 4기 여러분들도 공인영어점수 향상을 위한 공부는 최대한 일찍 시작하시고 시험에 꾸준히 응시하여 최고득점의 성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법학적성시험 (LEET)

① 언어이해·추리논증

LEET 시험은 장기간의 공부로 점수가 향상되는 시험이 아니므로 처음 점수가 곧 최종 시험장에서의 점수와 거의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개월의 수험생활을 통해 저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적인 공부전략을 수립해 실천한다면 LEET 역시 노력한 정도에 비례하여 점수향상을 달성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법 전공에 1학기 수시 합격으로 수학능력시험조차 치르지 않고 대학에 입학한 제게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은 매우 생소한 시험이었습니다. 따라서 처음 기출문제를 접할 때에는 ‘과연 내가 가진 실력으로 이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중요한 것은 마인트컨트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언어이해’의 경우 영어도 아닌 한글로 작성된 지문에 대한 이해를 요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노력을 통해 당연히 극복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자 하였고, '추리논증' 학습을 통해 논리적 사고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조금해하지 않고 LEET 준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방법적인 면에서는 공부시작 당시 시험 내용이나 유형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였기에 학원 강의와 개인공부를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학원 강의와 개인공부의 기본 비중을 40:60으로 놓고 5월, 6월, 7월, 8월의 4개월 간 동영상 강의를 통한 기본개념 익히기, 문제유형분석, 기출문제풀기, 노트정리를 통해 조금씩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마지막 8월에는 실제 LEET 시험을 보는 오전 시간을 활용해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실천처럼 풀이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수능 언어영역, MEET, DEET, PEET, PSAT 언어논리와 상황판단 기출문제들을 시간을 재며 푸는 연습을 통해 LEET를 정해진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어이해의 공부를 처음 시작한 5월과 6월에는 지문을 꼼꼼히 분석하고 문제 유형별 출제도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로스쿨 입시전문학원 유명강사의 동영상 강의를 보며 지문의 성격과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했던 과정이 탄탄한 기초를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편, 문제를 풀이할 때 철학이나 과학 영역에서 기본개념을 한 번이라도 접해본 주제가 나오면 독해속도가 빨라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본개념에 익숙해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참고서적들도 틈틈이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철학과 굴뚝청소부(그린비, 이진경 지음)'와 '꿈꾸는 과학(폴로엠티, 김원기 지음)'은 과학과 철학 관련 지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에 예비 로스쿨 4기 여러분께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추리논증은 처음 두 달 간 기본이론 정리를 위한 동영상 강의를 보며 '추리'와 '논증'에 대한 기본개념을 익히는데 주력 하였습니다. 기본 기출문제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문제풀이방식을 익히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기출문제풀이를 주제로 한 유명 강사들의 동영상 강의를 참고하며 출제 의도나 가장 효과적인 문제 풀이방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험의 기본유형 및 개념과 더불어 생소한 과학 지식을 참고하며 만든 노트를 반복해서 읽었던 것도 추리논증 실력을 짧은 시간에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② 논술

논술을 아예 전형요소에서 배제시키는 학교들도 있으며 변별력이 없다는 생각에서 로스쿨 입시 준비 초기 단계에서부터 학습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원서를 제출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신의 강점 및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학교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했을 때 준비 가능한 모든 요소들은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갖추어 둬야 현명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비법학 전공자로서 법학적성시험의 생소한 문제 유형과 학문영역, 법적인 사고능력을 요하는 논술답안 작성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논술고사를 치르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저에게 법학적성시험 준비를 위해 난생 처음 접해본 논술의 벽은 매우 높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에 앞서 논술 과목에 대한 학습을 먼저 시작하였고 LEET 시험 바로 전 주까지 4개월 간 매 주 토요일마다 로스쿨 입시전문 학원에서 진행되는 강의를 듣고 전문 컨설턴트의 첨삭을 받으며 논술실력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7월과 8월에는 매일 아침 LEET 1회, 2회 논술 기출문제의 개요를 반복해서 작성하며 제시문 유형과 답안작성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논술에 대한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 하였으나 학원 강의 활용과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적으로 작성해보는 훈련을 병행한 결과 시험 당일 정해진 시간 내에 제시문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사안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체계적으로 전개하며 만족스러운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2. 정성평가 - 마지막 승부수!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어필하라!

앞서 살펴 본 공인영어점수, 법학적성시험성적은 객관적인 점수에 의해 학생들을 서열화 할 수 있는 항목들에 해당하며 수험생의 기본지식수준과 학습역량,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계획 수립 여부에 따라 로스쿨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개인별 편차가 다소 크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 로스쿨 진학에 성공한 선배 기수들, 동기들이 공통적으로 수공하는 부분은 꾸준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성공적인 로스쿨 입시는 시험성적 외의 요소들에서 다른 수험생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자신만의 강점과 장래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에 달려 있으며, 이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로스쿨 당락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 줍니다. 특히 7월 회사 업무를 마무리하기 전까지 새벽2시까지 이어지는 야간 근무 속에 로스쿨 입시를 준비한 저로써는 LEET를 최고득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점수를 정성적인 평가에서 만회

하여야 한다는 일념으로 LEET 시험을 치르고 난 뒤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 더욱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1)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작성은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며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동기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지에 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수정을 반복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돌이켜보면 LEET, 공인영어, 면접 등 모든 준비 과정을 통 털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던 때가 가장 큰 인내를 요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정량적인 요소에 기한 평가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험생들과 구별되는 저 자신만의 장점과 훌륭한 법조인으로서의 잠재성을 부각시키는 데 있어 자기소개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며 제 경력과 성격에 대해 진지하게 분석해 본 경험은 실전 면접에서 다양한 인성문제에 대한 답변을 구상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스쿨 입학 후 새로운 법학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학부 전공 분야나 경력과 접목된 사례들을 떠올려 보는 지금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됐던 요인으로 강의 활용과 컨셉 정하기, 그리고 첨삭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① 강의 활용

교환학생 지원과 입사를 위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기에 로스쿨 지원동기 역시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왜 법학을 공부하고자 하는가? 다른 학교가 아닌 우리 로스쿨에 지원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과연 당신은 다른 지원자와 구별되는 강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구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격적인 자기소개서 작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입시전문 자기소개서 컨설팅트’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제출용도의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한 강의를 들었고, 이는 효과적인 자기소개서 작성의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② 컨셉 정하기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정한 컨셉을 잡아 자신의 전공 혹은 경력과 관련된 강점과 지원 동기를 일관되게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자신만의 강점과 경험, 경력 하나하나가 ‘구슬’에 해당한다면 효과적인 컨셉이라는 ‘실’로 단단히 꿰어 냈을 때 비로소 지원자의 매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이 ‘컨셉 잡기’입니다. 자신만의 특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컨셉이란 하루아침에 불현듯 떠오르는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LEET를 치르고 난 뒤 예비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는 과정 속에 저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을 통해 가장 적절한 컨셉에 근접해 나아갔고 이러한 연습은 본격적인 자기소개서 작성 시간 절약과 더불어 각 항목마다 일관되게 제 강점을 부각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단계라 할지라도 가장 기본이 된다고 여겨지거나 다양한 항목에 관한 작성을 요하는 양식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가능한 일찍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작성해 볼 것을 권합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정한 양식에 맞추어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해보는 연습 과정 속에 가장 효과적인 컨셉을 정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최종 학교의 자기소개서 작성 시 저만의 특화된 강점을 확실히 부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오는 압박감이나 심적 부담감 역시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③ 첨삭

자기소개서 첨삭 단계에서는 전문 컨설턴트와 더불어 저를 가장 잘 아는 친구들, 직장상사,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모범적인 자기소개서 샘플들을 얻어 참고하며 효과적인 자기소개서 작성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고 지인들에게는 자기소개서에 저만의 개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지의 여부에 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20회 이상의 수정 작업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제가 지닌 강점과 로스쿨에 가고자하는 동기가 잘 드러나는 자기소개서로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제차 강조하지만 자기소개서를 수정하는 때 번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내용이나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과정은 큰 인내를 요하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 마음이 나약해질 때마다 로스쿨 입학의 기회는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다는 점과 제가 처음 로스쿨 입학을 결심하게 된 동기에 대해, 그리고 3년 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제 모습을 떠올리며 굳건한 의지를 새로이 다진 뒤 자기소개서 수정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가 로스쿨에 가고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떠올리며 목표한 바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로 자기소개서 작성의 산을 넘으시기 바랍니다.

(2) 면접

로스쿨 면접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집단 토론이나 교수님들과의 대담 형식으로

이루어짐을 고려했을 때 ‘스터디’와 ‘토론메이트’를 통한 면접 준비가 성공적인 로스쿨 입시 전략의 주축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예비 법조인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강점들을 심혈을 기울여 압축시킨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자 노력하고 제 자신을 소개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했던 것도 로스쿨 면접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① 스터디

9월과 10월 초에는 법과 사회, 철학 등 다양한 지식 전반에 대해 각자가 맡은 영역과 이슈에 대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며 기본소양을 풍부하게 다지는 시간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10월은 모의면접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연습에 주력하였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스터디원들과 함께 모여 특정 주제에 대해 돌아가며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로스쿨 면접 기출문제가 정리된 자료를 구하여 인성, 사회, 정치, 헌법적 가치관련 쟁점, 법적딜레마상황 등 세부 영역별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를 선정하여 각자 집에서 서면 답안을 작성하고 스터디 시간에는 모의면접 상황 속에 발표하는 연습을 반복하였습니다. 1차 합격자가 발표된 뒤 최종 면접을 앞둔 11월에는 매 스터디 모임마다 무작위로 선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3분 스피치를 텔레이로 진행하며 실전면접감과 임기응변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모의면접 후 스터디원으로부터 답변 내용뿐만 아니라 속도, 어투, 자세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던 것이 면접에 대한 전반적인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② 토론메이트

스터디를 통한 모의면접 진행과 더불어 마음이 맞는 친구를 ‘토론메이트’로 정하여 둘 만의 열띤 토론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방법 역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로스쿨 2기 선배의 권유로 LEET 시험을 마친 뒤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토론메이트’와 북카페에서 만나 낙태문제, 간통죄처벌, 사형집행처럼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주제들에 대해 부담 없이 대화식 토론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터디는 다수의 스터디원들과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진행하며 명료한 논증 형식을 갖추어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토론메이트’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 상대방과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회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을 정리할 수 있기에 면접 준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실전 면접에서 익숙하지 않은 주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제 입장에 부합하는 답변을 제시할 수 있었던 데에는 ‘토론메이트’와의 대화를 통해 사회를 바

라보는 저만의 관점을 정립해 온 시간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③ 자기PR

면접 직전까지 자기소개서를 반복해서 읽으며 내용을 숙지하였고 자기소개, 로스쿨 지원동기, 그리고 면접 마무리 멘트를 2분, 3분, 5분 스피치로 반복적으로 연습하였습니다. 제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달하고자 기울인 이와 같은 노력이 3개월 간 꾸준히 진행해 온 스터디를 통해 축적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기본 지식 및 논증능력과 함께 어우러지며 자신감을 갖고 면접에 임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되어준 결과 가군과 나군 면접 모두 만족스럽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III. 로스쿨 입시를 마치며 -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자세'!

로스쿨 입시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어느 하나의 요소도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이 어느 한가지의 요소가 뒤처지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함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법조인의 길을 가고자 확고한 의지와 목표가 세워져 있다면 꾸준히 준비하고 나온 결과에 따라 입시전략을 설정하고 입시에 임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로스쿨 입시는 몇 달 아니 몇 년에 걸쳐서 형성된 결과물을 놓고 평가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내를 가지고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또한 입시의 과정 속에서 저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제가 받아낸 정량적 요소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불안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성심껏 로스쿨 입시를 마친 결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일희일비 할 필요 없이 언제나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로스쿨 입시를 성실하게 마치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명언을 남기면서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저의 미약한 글이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Never, Never, Never, Never Give Up. - 윈스턴 처칠